

아시아의 혁신도시

강영주 | 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1

겐팅하이랜드

; 말레이시아 최고의 관광·휴양 리조트

: 쿠알라룸푸르에서 51km 북동쪽, 해발 1천800m 열대 우림에 자리 잡은 고원 휴양형 리조트

1. 겐팅하이랜드 개관

겐팅하이랜드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카지노 리조트로, 2000년 10월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강원랜드와 같이 말레이시아의 이슬람교도를 제외한 내국인의 출입이 허용되고 있다.

겐팅하이랜드리조트는 6개 호텔에 약 6천개 이상의 객실을 보유하고 있으며, 휴양지로서는 보기 드물게 연평균 객실점유율 85%이상의 매우 높은 객실예약실적을 보이고 있다. 또한 지상에서 겐팅하이랜드리조트까지 연장 3.4km의 케이블카가 설치되어 시간당 2천명을 수송하고 있으며, 아름다운 산중 골프코스과 골퍼 전용 호텔이 있어 세계 각국의 많은 골프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다. 주요시설은 호텔, 아파트형 호텔, 컨벤션센터, 테마파크, 인터내셔널쇼룸, 스포츠시설, 카지노 등 7개로 구분되며, 카지노시설은 테마파크시설 중 일부로 운영되고 있다. 카지노는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는 일반용 카지노장과 회원 및 초청고객들만 이용할 수 있는 회원용 카지노장으로 구분 된다.

인공호수, 마상 스포츠를 할 수 있는 목장, 16레인의 볼링장, 실내온수 수영장은 이 시원한 산지 휴양지의 매력을 더해 주고 있고, 914m높이에서 해발 1,768m에 있는 리조트까지 이어지는 케이블카도 고객들에게 색다른 스릴을 제공하고 있다. 골프 애호가들을 위한 파 71 18홀 규모의 아와나 골프 컨트리클럽이 있으며, 실내의 겐팅템 짝은 오락게임과 하이 켄트의 조이 라이드 등으로 대중오락을 제공하고 있다. 겐팅 극장식당은 훌륭한 정찬과 국제 디너쇼를 보여주며, 겐팅 카지노에서는 블랙잭, 바커, 키노우, 프렌치 볼, 룰렛, 타이 사이, 슬롯머신 등의 게임을 즐길 수 있다.

2. 개발배경

겐팅하이랜드리조트는 당초 시원한 고원지대에 휴양을 위한 휴양리조트로 건설되었던 것이 카지노리조트로 발전되었다. 보통 카지노리조트의 개발 배경상 외국인 허용 카지노리조트는 외화 획득이 주 목적이고, 내국인 허용 리조트는 지역 경제 발전 및 지역 주민의 소득향상이 주된 목적이 되지만 겐팅하이랜드는 허용되는 내국인 자체가 이슬람교도가 아닌 사람들로 대부분 화교로 구성되기 때문에 외화의 획득이 주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1964년 겐팅하이랜드의 창시자인 임고동은 말레이시아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열대 기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시원한 곳에 휴식처를 설립할 생각으로 고원지대에 산악리조트를 만들기를 희망하였다. 그는 이에 적합한 지역을 찾아내기 위해 연구한 끝에 쿠알라룸푸르에서 약 58km 떨어진 근처에 이상적인 장소를 발견했으며, 1965년 모두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 이곳에 그의 친구인 하지모하메드 노아빈 오마르와 함께 겐팅하이랜드리조트를 건설하기 시작하였다.

그는 열대 정글을 통과하는 25.5km의 도로를 건설하는 엄청난 역사를 포기하지 않고 4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추진하였고 결국, 이 산지를 말레이시아 최고의 휴양지로 만들기 위해 접근 가능한 지형으로 바꾸어 놓았다. 그 후 꾸준한 개발노력 끝에 지금의 동양최대의 종합 리조트를 건설하게 된 것이다.

3. 개발 테마 · 컨셉

1) City of Entertainment

젠팅하이랜드의 가장 대표적인 컨셉은 Entertainment이다. 이는 Pleasure와 Enjoying외에도 Resting, Amenity, Recreation, Prestige등의 다양한 의미를 모두 뜻한다. 한마디로 복합리조트로서의 모든 메리트를 강조하는 것이다. 젠팅하이랜드는 리조트 내의 대형 카지노로 비교적 큰 명성을 얻고 있지만, 사실상 그에 못지않은 규모와 수준의 호텔, 테마파크, 컨벤션센터, 골프장, 스포츠센터, 극장, 식당 등의 종합적 리조트 시설을 갖추고 있다.

2) Plateau Resort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카지노리조트인 젠팅하이랜드는 일단 그 입지조건 하나만으로도 커다란 매력, 유인력을 가진다. 해발 2000m의 고원에 위치한 젠팅하이랜드는 이곳을 찾는 고객들에게 구름 위의 또 다른 세상을 만나는 즐거움을 제공한다. 또한 더운 기후의 말레이시아 내에서 이색적인 고원지대의 서늘한 기후를 만끽할 수도 있다.

3) Eco Resort

젠팅하이랜드는 자연과 함께하는 진정한 휴양 리조트이다. 숲과 강으로 이루어진 아름다운 자연, 그 곳에서의 휴식 뿐만 아니라 그 공간 위에 조화롭게 구성된 복합 리조트 시설의 편리성이라는 매력을 더해 편안함과 즐거움을 동시에 제공한다. 이는 라스베이거스의 다른 카지노리조트들이 내세우는 뻣뻣한 고층건물, 화려한 네온사인, 잘 닦여진 도로 등의 도시적 매력과는 차별화된 메리트다.

4. 개발규모 및 과정

젠팅하이랜드리조트는 면적 12,000acres (약 1,469만평), 지상에서 정상까지의 도로 길이 약

25km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리조트 단지이다. 1965년에 파항 지역의 12,000acres, 1970년 셀랑고 지역 2,800acres를 각 정부로부터 양도 승인 받았다.

1965년 8월 18일 기술팀과 건설팀이 겐팅하이랜드 꼭대기까지 연결되는 길을 건설하는데 착수하여 4년 만에 이를 완성하였다. 1969년 3월 31일 이 프로젝트는 말레이시아 최초 수상이었던 툰쿠 압둘라만에게 인정받았고 기업의 첫 번째 호텔인 하이랜드호텔(현 테마파크호텔)의 건립이 시작되었다. 정부는 당초 정부지원 없이 순수하게 민간자본으로 시작한 이 리조트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카지노 허가권을 주었으며 이 때부터 말레이시아 내 유일한 독점적 카지노로서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다.

1971년 하이랜드호텔이 성공적으로 완성되었고 빠르게 증가하는 관광객을 수용하기 위해서 두 번째인 리아 호텔이 1972년에 완공되었으며 뒤이어 1975년에 펠랑지호텔과 스리라양호텔 등이 완공되었다. 또한 1급 호텔인 겐팅호텔이 1978년 부분적으로 오픈하였고 1981년 완공되었다. 그 후로 많은 인프라 구축에 힘써 1982년 통신시설과 소방대 시설, 도로 시설 등이 개통되었다. 1984년에는 전기 공급도 완벽해졌다. 1990년부터 5개년 개발 계획이 시행되었는데 이 기간에 여러 시설의 증가와 더불어 교통 시스템의 심도 있는 개발이 진행되었다. 또한 직원들의 숙박시설이 스리라양 지역에 만들어졌고 펠랑지호텔에서 테마파크로 연결되는 다리가 만들어졌다. 겐팅 테마파크에는 더 많은 게임과 기구, 쇼핑센터와 음식점이 개발되었다. 1995년에는 실내, 실외 테마파크에 롤러코스터가 완공됨으로써 카지노관광 이외의 목적을 가진 많은 관광객들에게 더 많은 흥미를 제공하게 되었다.

5. 투자방법

겐팅하이랜드리조트는 창시자인 임고동이 개인자산을 이용하여 설립한 민간투자기업 겐팅 버하드(Genting Berhad- 겐팅 버하드는 주로 투자 점유와 투자매니지먼트를 하는 회사)의 주도로 정부의 재정적인 지원 없이 개발을 시작하였다. 1970년대에 들어서 리조트의 주식을 거래하기 시작하면서 개발이 활발해졌으며, 그 후로 꾸준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6. 운영상태

겐팅하이랜드리조트는 카지노를 포함한 리조트 단지 매출액에 관한 손익계산서와 대차 대조표를 Annual Report로 작성하여 매년 공개하고 있다. 겐팅하이랜드리조트의 영업수익에는 호텔, 레스토랑, 레크레이션 및 유흥, 교통, 게임운영 수입(Net house taking)이 포함되며 공식자료에는 카지노 수입을 별도로 분리시키지 않고 있다.

겐팅하이랜드리조트의 2000년도 총 영업수익은 33억 8,600만 링깃이었으며 법인세 납부 후 순손실은 2.5억 링깃이었다. 다음해인 2001년도 총 영업수입은 31억 4,800만 링깃이었고 법인세 차감 후 순이익은 4억 5,300만 링깃으로 한화 약 1,548억원에 달하는 흑자를 기록하였다. 또한 2001년도 겐팅하이랜드리조트가 세금으로 납부한 금액은 5억 8,100만 링깃(약 689억원)으로 나타났다.

최근 겐팅하이랜드의 이용자 수는 연간 1,500만 명을 넘고 있다. 당초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목적으로 운영되었던 겐팅하이랜드는 이슬람교도를 제외한 내국인의 출입이 가능하며 방문자 수는 1994년 660만 명, 1995년 670만 명에서 1999년 1,210만 명, 2000년 1,340만 명, 2002년 1,500만 명, 2004년 1,740만 명, 2005년 1,870만 명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외국인 방문객 수 또한 증가하여 2005년 현재 전체 방문객의 50%를 외국관광객이 차지하고 있다.

7. 운영성과

말레이시아 기업 중 최고 세금 납부 및 외화를 획득하였고, 2005년 아시아 최고 및 세계 최고 카지노리조트 상을 수상하였다.

2

주강델타

; 광저우, 심천, 동관

1. 광둥성 및 주변지역 기본 현황

광둥성은 역사적인 이유와 지리적인 이점으로 인하여 중국 개혁개방의 시발지로서 중국 경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 31개 성시 중 GDP 규모 1위(중국 전체 GDP의 12%)를 차지하고 있으며, 총수출의 30%를 점유하고 있다. 광둥성의 성도인 광저우시는 작년 1인당 소득이 8,300불로서 상해, 심천 다음으로 번영을 구가하고 있다.

작년 중국 중앙정부의 경제발전 4대 중점지구(중, 동, 북, 서)에서 광둥성을 위시한 화남지방이 제외되었으나, 이는 광둥성 등이 중앙정부의 제도 없이도 자력으로 계속 경제발전을 해 나갈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구 분	광 동 성	복 건 성	해 남 성	광 서 자 치 구
면 적	17.98만km ²	12.14만km ²	3.54만km ²	23.67만km ²
인 구 (04년말 기준)	12,100만명	3,511만명	828만명	4,889만명
성 회	廣州	福州	海口	南
GDP (성장률) - 05년	21,701億元 (12.5%)	6,560億元 (11.3%)	904億元 (10.1%)	4,063億元 (12.7%)
- 06년 1/4분기	5,206億元 (13.7%)	1,349億元 (12.7%)	216億元 (11.7%)	965億元 (13.5%)
교역규모(수출/수입) - 05년	4,280억불 (2,382/1,898)	544억불 (348/196)	26억불 (10/16)	52억불 (29/23)
- 06년 1/4분기	1,058억불 (583/475)	130억불 (82/48)	6.4억불 (2.8/3.6)	15.1억불 (7.4/7.7)

구 분	광 동 성	복 건 성	해 남 성	광 서 자 치 구
대외투자유치 (05년말 누계)	127억불	62억불	7억불	4억불
한국의 대관할지 교역 (수출/수입/수지) - 05년	205억불 (160/45/+115)	27억불 (20/6/+14)	62백만불 (17/45/-28)	195백만불 (99/96/-3)
- 06년 1/4분기	55억불 (45/10/+35)	7억불 (5/2/+3)	19백만불 (3/16/-13)	52백만불 (31/21+10)
한국의 대관할지 투자 (2004년)	114백만불 (86건)	6.6백만불 (13건)	2.5백만불 (3건)	-
우리기업 (05년말 추정치)	2000	270	40	55
교민 수 (05년말 추정치)	39,800	1,200	110	150
유학생 수 (05년말 현재)	2,823	207	18	68

2. 우리 기업의 진출 동향, 현지 투자 여건

광둥성은 중국의 3대 경제축인 화남경제권의 중심이나, 우리나라에는 이러한 사실이 잘 알려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광둥성이 지리적으로 비교적 원거리인 데다가 조선족 동포가 적어 경제적인 중요도에 비해서 인지도가 낮다. 그러나, 광둥성은 중국 개혁개방의 선두지역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로서는 중요한 교역대상 지역의 하나이다.

한국·광둥성 교역액(205억불)은 우리의 제4대 교역국을 능가하는 규모이고, 대광둥성 수출액(160억불)이 우리의 제3대 수출 대상국(일본)에 대한 수출액 다음으로 많다. 우리나라의 대광둥성 무역흑자(115억불)는 제3위 흑자 대상국(미국)과의 흑자규모를 상회하고 있다.

최근 들어 동 지역의 경제적 중요성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에 있다. 2001. 8월 영사관 개설시만 해도 광둥성 내 우리 교민 수는 5,000명을 밑돌았지만, 현재는 4만

명을 상회하고 있다. 금년 1월 중 김정일 위원장이 중국 개혁개방 학습차 광저우 및 심천을 방문한 것도 한국인의 광동성에 대한 관심 제고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광동성에는 세계 500대 기업 중 200여 개 기업이 이미 진출해 있으며, 우리나라의 대기업도 거의 대부분 진출하고 있다. 광동성에는 주요 대기업을 포함하여 2,000개의 한국 기업이 진출해 있고, 특히 광저우개발구에는 LG화학 등 우리기업 6개가 입주해 있으며, 최근에도 한국의 강판 회사가 동 개발구에 공장을 건설 중이다.

※ 광저우개발구 : 제작년에 이어 작년에도 중국의 국가급 개발구(54개) 중 GDP 1위를 기록

심천시에는 우리 기업 1,000개사가 진출해 있어서 역내 최다규모를 보이고 있다. 주로 중소기업이 진출해 있으며, 전기, 전자, 봉제, 완구, 가방, 액세서리, 물류, 서비스업(요식업, 이용업) 등에 종사하고 있다. 특히 광주-심천간 고속버스도 우리기업이 운영하는 버스가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동관과 혜주에는 우리 기업이 각각 400개사 및 100개사가 진출하고 있다.

현지투자 여건을 살펴보면, 광동성을 비롯한 화남지방은 중국에서 가장 먼저 경제적으로 발전한 지역에 속하며, 79년의 개혁개방 정책 시행에 따라 80년에 최초로 지정된 경제특구 4곳이 모두 동 지역에 소재하고 있다.

※ 4개 경제특구 : 광동성의 深圳·珠海·汕頭, 복건성의 廈門

주로 하이테크 산업, 에너지 절약형 산업, 그리고 환경친화형 산업이 환영을 받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으로 인해 노동집약적 산업의 투자는 어려운 상황이다.

※ 심천특구 최저임금(06.7.1부터) : 810元/월 (중국 최고수준)

이미 준비된 사회간접자본(SOC)과, 임금이 상대적으로 좀 높기는 하지만 질 좋은 노동력, 그리

고 대외적으로 개방적인 사회분위기 등을 활용할 수 있는 기업의 진출이 유망하다. 2001년말 중국의 WTO 가입과 더불어 외국기업에 대한 우대 정책이 차츰 줄어드는 추세에 있으나, 기 진출한 우리 기업들 중 좋은 성과를 도출한 기업도 다수 존재하고 있다. 한 컨테이너 제조업체는 세계 3위의 생산량을 자랑하고 있으며, 작년 말에 진출한 TV 프로그램 공급업체는 동사가 공급한 한국의 오락 프로그램이 남방 TV에서 시청률 1위를 기록하고 있다 한다.

한편, 복건성은 예전에 대만과의 대치상태 중 최전방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연안지역에 비해 아직 개발이 많이 진행되지 않아, 앞으로 투자진출의 여지가 크다. 지가·임금 등이 여타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고, 성정부차원에서도 투자유치 등 대외경제협력에 매우 적극적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 공업용지('05년) : 복주시 334元/m², 광주시 583元/m², 남경시 865元/m²

※ 최저임금('05년) : 복건성 470元/월, 광둥성 684元/월, 강소성 690元/월

3

장강하이테크 단지 ; 중국 IT, BT 산업의 중심지

1. 중국 경제성장의 엔진과 장강델타

중국의 IT 산업기지는로는 상해 포동(浦東)을 중심으로 한 장강(長江)델타 지역, 중관촌(中關村)을 중심으로 한 북경지역, 심천을 중심으로 한 광둥성의 주강(珠江)델타 지역이 있으며, 이 3개 지역이 각기 다른 특징을 갖고 보완관계를 이루어 중국 IT산업의 3대 지역 축을 이루고 있다.

이들 지역은 각각의 특징을 가지고 발전하고 있는데, 최근 가장 발전하고 있는 장강델타지역은 하이테크의 산업 집중화 단지를 이루고 있고, 중관촌 등 북경지역은 연구개발 단지, 주강델타 지역은 IT산업 제조기지로 발전하고 있다. 최근에는 서부 대개발 바람을 타고 중경(重慶), 성도(成都), 서안(西安) 등 내륙지역에서도 첨단산업이 태동하고 있다.



2. 포동신구 개관

▷ 면적 : 522km²

- 포서지역 기준시가지: 351km²

- 상해 시 전체면적 : 6,340.5km² (市區: 3,248.7km²)

※ 상해시 행정구역은 황포강 서쪽의 포서지구에 13개의 市區 및 시외곽의 6개의 郊縣과 포동신구로 구성되어 있음

▷ 인구 : 240만명

- 상해 시 전체인구 : 1,674만 명

▷ 위치 : 상해시를 東西로 가르는 黃浦江 동쪽에 위치

▷ 개발단계 : 3단계 개발계획

- 1단계(1991-1995년) : 개발초기단계. 4개의 국가급 개발구를 중점 개발하여 중국인 및 외
국인투자유치를 위한 여건 조성
- 2단계(1996-2000년) : 중점개발단계. 사회간접자본을 계속 확충하여 비교적 완비된 포동
신구 형성
- 3단계(2001-2010년) : 전면적 개발단계. 외향경제를 중심으로 현대화된 공업기지와 금융·
무역·과학기술정보의 중심지로 발전

▷ 외자유치 현황 : 투자건수 급증

	2002	2003	2004년 1~10월
프로젝트 수(개)	964	1,672	1,431
금액(억\$, 계약기준)	26.68	28.75	28.55

※ 자료출처 : 《2004상해통계연감》, 《상해무역통계월보》

- '04년 말 현재 포동에 설립된 외국기업은 약 1만 여 개, 계약 기준 외자유치액 220억 달러, 중
양정부와 타 지방정부에 의한 투자 건수는 8,000여 건, 투자액은 천억 위안 (약 120억 달러)에
달함.
- 500대 기업 중 180개 기업, 다국적기업의 R&D 센터 91개가 포동에 입주

▷ 포동 4대 국가급 개발구 현황

○ 육가취(陸家嘴) 금융무역개발구

- 육가취 금융무역 개발구는 南浦와 楊浦 두 개의 교량과 황포강 河底 터널로 포서지구와
연결되어 있으며 제3차 산업 중심지로서 개발 (계획면적 28km², 개발면적 5.8km²)됨.
- 이 지구는 다시 금융무역구, 竹園무역구, 龍陽무역구로 세분화되며, 황포강을 사이에 두고
포서의 외탄을 마주하고 있는 포동신구의 중심지역임.

- 현재 동 개발구에는 400여 동의 현대화 빌딩이 건설되어 있음. 금융, 보험, 투자, 무역부문의 내외자기업 1,000여개가 설립되어 있으며 그 중 다국적기업 지역본부 및 대표처 34개, 은행, 보험, 증권 등 금융기구가 143개(외자계 은행 63개)임.
- 최근 CBD(Central Business District)기능에 필요한 정보서비스업, 금융보험업, 유통업 발전에 중점을 두고 있음.

○ 외고교(外高橋) 보세구

- 외고교 보세개발구는 포동의 동북부에 위치, 양자강 하구에 접하고 있으며 종합자유무역구로서 보세창고, 수출입 가공산업, 중계무역, 관리단지 등으로 구성(계획면적 10km², 개발면적 7.52km²)됨.
- INTEL, HP, 필립스, IBM, JVC, 삼성, 대우 등 유명한 다국적기업이 진출함. 금년 말 현재 72개 국가의 6,000개 기업이 입주하고 있으며, 총 투자금액 73억 달러. 포춘지 선정 500대 기업 중 73개 기업이 투자함.
- 2003년 외고교 항구 화물처리량은 3억 1,800만 톤, 컨테이너 처리량은 1,128만 TEU로 화물선적량 세계 1위, 컨테이너 처리량 세계 3위를 기록

○ 금교(金橋) 수출가공개발구

- 금교수출가공개발구는 포동신구의 중부에 위치. 전체 계획면적 27km²의 수출 가공 및 국제무역개발구. 최근 다국적기업의 지역제품 생산기지, R&D 센터, 국제구매센터로 발전하고 있음.
- 2003년 역내 공업생산액은 1,083억 위안, 상해시의 1/10, 포동의 1/4. 전자통신, 현대가전, 의약, 자동차제조 등 4대 산업의 생산기지로 자리 매김
- GM, KODAK, VOLVO, SKF, HITACHI, SIMENS, LG 등 세계 우수기업 60개 업체가 입주, 총 투자액 102억 달러를 기록함. 포춘지 선정 500대 기업 중 32개 기업이 투자하고 있으며, 개발구 내의 공업 총 생산액은 매년 50% 이상의 속도로 증가
- 진출기업의 주요 생산품목은 완성차 및 부품, 가전, 컴퓨터 소프트웨어, 의약품 등

○ 장강(長江) 하이테크개발구

- 포동신구의 중부에 위치, 계획면적 25km², 개발면적 10km². 국내외 선진기술을 도입하여,

마이크로 전자, 컴퓨터 소프트웨어, 통신설비, 신소재 등 첨단 분야의 산업을 육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음.

- 중국 국무원 機電部가 5억원을 투자하여 통신 분야 소프트웨어기업을 설립한 것을 비롯하여 미국의 모토로라, 스위스 호프만제약 로쓰제약, 미츠시다, SKB 등 주로 통신 및 제약 업체가 진출. 2002년 말 현재 투자 프로젝트 564건, 투자액 90.01억 달러에 달함.
- 첨단기술을 접목한 문화산업 육성에도 역점을 두고, 문화산업과 문화시장 시스템을 구축함. 2006년 완공 예정으로 애니메이션 박물관 건설 중임.
- 장강 첨단기술구에는 100여 개 첨단기술 창업기업과 50여개 연구개발 기구, 전문가 3만 명이 집적하고 있음. 이러한 관련 기술을 활용하고, 점차 커지고 있는 아동시장을 겨냥하여 애니메이션, 온라인 게임, 전자출판 등을 위한 하드웨어 구축 중임.

▷ 투자인센티브 제도

구분			지원내용
세 제 지 원	법 인 세	적용세율	포동지역 : 15% (일반세율 30%)
		감면기간	- 생산형 기업 : 2년간 면제, 3년간 50% - 인프라형 기업 : 5년간 면제, 5년간 50% - 금융형 : 1년간 면제, 2년간 50%
		수출기업우대(수출비 중 70% 이상)	10% (경감세율)
		선진기술 기업우대	10% (경감세율)
	지방 소득세		3% (상해시 정부가 결정)
	수출품의 관세 공상통일세		생산설비, 원재료 등에 면세 (원유 등 국가가 규정하는 제품 이외)
	송금세		면제
	재투자에 대한 환급		기납부금액의 40% (제품수출, 선진기술기업 100%)
	토지관련		토지사용권 분양 (장기간 토지 임대)
	행정지원		원스톱 서비스

※ 주요지원대상: 금융, 무역, 정보통신

3. 포동구 장강하이테크단지

상해 인근 장강(張江)하이테크 단지는 포동 신구 중부에 위치한 국가급 하이테크 단지로 포동 신구 4대 중점개발소구 가운데 하나이며 총 면적은 25km²이다.

이곳은 기술혁신구와 하이테크실험산업구, R&D교육구, 생활서비스센터구, 거주단지와 과기산업구 등 6개의 기능구로 나뉘어져 있다. 소주공업원구가 국제간 정부합작 형식으로 형성된 반면, 장강단지는 중국 대기업이 투자해 만든 공업단지다.

이곳에서는 정보기술과 생물의학의 양대 하이테크산업을 주도산업으로 기업혁신과 창업기능강화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현재 단지 내에는 42개의 국내의 일류 제약회사들이 활동 중이고 중국과학원 약물연구소와 국가 인류유전자팀 등 31개의 연구개발기구가 있다.



장강단지 내에서 가장 큰 IT 기업으로는 중흥통신이 있다. 중흥통신은 중국 최대 통신장비 제조업체이자 무선서비스 업체로 국무원의 인정을 받은 중국 520개 중점육성 국유기업 가운데 하나이다. 동시에 근래 중국 시장에서 성장속도가 가장 빠른 통신관련 제조 업체의 하나로 휴대폰을 포함한 무선제품을 주로 생산하고 있다.



지난 1월 전격적으로 상하이를 방문한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이 ‘포동(浦東)을 배우자’며 찾아간 곳이 바로 장강(長江)하이테크 단지였다.

장강하이테크 단지는 지난 91년, 중국 정부가 포동 개발을 시작할 때 루자쭈이(陸家嘴) 금융무역구, 와이가오차오(外高橋) 보세구, 진차오(金橋) 수출가공구와 함께 포

동의 4대 중점 개발구로 만들어진 중국의 대표적인 IT단지다. 지난 해에만 645개의 기업이 새로 입주했고, 이 중 191개가 외국기업이다.

1993~99년에 이곳 장강하이테크 단지에 대한 투자액은 1억~2억 달러 수준에 지나지 않았으나 지난해 투자액이 급증하기 시작해 무려 34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투자액 34억 달러 중 32억 달러를 외국인이 투자했다.

단지 중심부에 위치한 포동생산력촉진센터(浦東生產力促進中心)는 장강 하이테크 단지에 들어서는 국내외 업체들을 위해 각종 기초자료와 정보를 제공할 뿐 아니라 고급 인력을 소개하거나 창업자금을 융자해 주는 역할까지 떠맡고 있는 투자유치의 산실이다.

1998년 8월 상해시위원회와 시정부는 “장강으로의 결집”이라는 정책전략을 내걸고, 생물의약과 정보기술 양대 하이테크 산업을 주요산업으로 하여 이 단지를 집중 육성할 것임을 천명하였다. 이에 장강단지는 급속한 발전을 경험하게 된다.

현재 장강단지는 개발면적 10km²의 규모를 갖추고 10년의 개발과정을 거쳐, 3대 국가급기지(국가 상해 생물의약 과기산업기지, 국가 정보기술산업 기지, 국가 과기창업기지)의 큰 틀을 조직하고, 그 안에서 생물의약, 집적회로, 소프트웨어의 3대 주도 산업을 구성하였다. 생물의약산업분야에서는 현재 Roche, 글락소, Smith Kline, 선봉제약회사 등 43개 국내외 일류 제약회사들로 구성된 산업단체를 형성하고 있으며, 중국과학원 약품연구소, 국가 인류 게놈 남방연구개발센터 등 23개 연구개발 조직을 동원하는 한편, 120여 개 중소형 과학기술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창업단체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정보산업기지는 집적회로와 소프트웨어 산업을 동력으로 컴퓨터와 통신, 광전자, 정보보안, 은행카드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이에 SMIC, 핑력, 패령 등 IC 제조업체의 뒤를 이어 44개의 칩 설계회사, 3개의 실리콘칩 제조회사, 10개의 광모듈 및 장착실험기업, 10개의 연구개발 교육기구 및 25개의 부대설비 제공 회사가 장강으로 모여들어 집적회로 산업의 기초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몇 년간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면적 12만㎡의 포동 소프트웨어 단지는 국가 소프트웨어 산업의 기지로 거듭났다. 미국의 블랙보드 소프트웨어 개발센터, Synopsys, 시티뱅크 아태지역 연구개발센터, 일본 소니 상해소프트웨어연구개발센터, 교세라, 인도의 TCS, 새티암 등 저명한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이곳에 집중되어 있어, 소위 ‘국가 소프트웨어 산업기지’라는 이름에 걸맞는 면모를 자랑하고 있다.

과기창업기지는 각종 모델 형식의 창업 인큐베이터로서 독보적인 창업기능을 발휘하였고, 신경제기업들의 비약적인 발전을 이뤄내고 있다.

중국 경제 개방의 상징으로 처음 경제특구를 설치한 광둥성(廣東省)의 심천특구의 IT단지가 하드웨어와 주변기기 중심으로 구성되었다면 상하이 장강하이테크 단지와 베이징 중관촌은 주로 소프트웨어 분야의 진출이 활발하다.



장강 하이테크 단지에는 IT업체들 뿐만 아니라 생물분야를 연구개발하는 바이오 분야의 연구소와 기업들이 즐비하다. 미국의 모토로라, 스위스의 로쉬, 독일의 베링거인겔하임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통신회사와 제약회사들이 모두 입주해 있다. 베이징의 IT단지로 유명한 중관촌이 주로 중소 IT기업들이 경쟁하는 곳이라면 상하이의 장강하이테크 단지는 국내외 통신 및 바이오 관련 대기업의 젊은 엔지니어들이 원천 기술개발에 몰두하는 곳이다.

4

푸트라자야

; 2012년 완성될 최첨단 신행정 도시

1. 푸트라자야 개관

말레이시아는 1993년부터 지금의 수도인 쿠알라룸푸르 인근인 푸트라자야에 최첨단 행정도시를 건설해오고 있다.

푸트라자야(Putrajaya)는 쿠알라룸푸르로부터 차로 50여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 말레이시아 행정도시 푸트라자야의 건설은 말레이시아를 동남아지역 정보통신 및 멀티미디어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다.

푸트라자야에는 1999년 총리실 이전을 시작으로 현재 약 2만 5000명의 공무원이 이전해 있고, 앞으로 공무원 및 일반시민의 입주가 완료되면 약 33만 명이 거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호수를 중심으로 건설된 정부 건물과 주거지역

말레이시아 최대의 도시 개발 프로젝트인 푸트라자야 건설은 1993년 당시 마하티르 총리에 의해 계획된 ‘말레이시아 첨단기술발전 중장기 프로젝트’에 포함된 계획의 하나로 말레이시아 최초의 인텔리전트 도시를 지향하였다. ‘푸트라자야’란 명칭은 말레이시아 초대 수상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다.

2. 최초의 인텔리전트 도시 지향

이 도시는 쿠알라룸푸르 남단에서부터 최근 포물러1 자동차 경주와 국제공항으로 널리 알려진 세팡에 이르는 ‘멀티미디어 수퍼 코리도’라는 지역 안에 건설되고 있다. 멀티미디어 수퍼 코리도는 신도시와 최첨단 사무실, 공원 등을 갖추고 있으며, 고속도로와 신속한 운송망, 고속 통신망이 서로 연결된 정보 도시 권역으로 개발 중이다.

말레이시아인들의 21세기를 향한 이상이 깃든 이 도시는 약 1천100만평의 면적에 대략 33만 5천 명을 수용할 계획이다. 이 건설 프로젝트는 총 2단계로 진행되고 있는데 완공 목표는 2012년이다. 1단계 공사는 1996년에 시작되어 2004년 초에 완공됐으며, 정부청사, 공공위락시설, 사회기반시설, 주거시설, 습지대 및 공원 등이 들어서 있다.

푸트라자야는 핵심지역인 5개 구역을 포함한 20개 구역으로 나뉜다. 이 외에도 14개 구역에 54만 평의 주거지역과 습지대가 조성될 예정이다. 주거지역은 총 면적의 약 30 퍼센트에 해당하는 330만 평을 차지한다. 이 밖에 12곳의 공원과 정원, 습지대가 조화롭고 자연 친화적인 형태로 조성되고 있다.



낮에 본 수상집무실

또한 버스, 경전철, 해상교통, 공원형의 여객터미널 등을 지닌 도시내, 도시간 완벽한 운송시스템과 인프라를 갖춘다. 커뮤니케이션, 엔터테인먼트, 안전관리 및 에너지관리 등 미래형 첨단 도시의 시설 구축에 주안점을 두고 있어 우리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푸트라자야는 막대한 개발비용의 부담을 덜기 위해 개발 시행을 이원화해서 병원, 학교, 시장, 식당가, 공동모임 시설 등은 정부가 직접 공급하고 정부청사, 공무원주택단지, 기간시설, 일부 공공편의시설은 민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민간개발의 관리 및 책임은 ‘푸트라자야 홀딩스’가 담당하고 있다. 푸트라자야 홀딩스는 투자자로부터의 자금 유치, 은행으로부터의 차입, 채권발행을 통한 차입 등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있다.

푸트라자야의 건축물들은 웅장하면서도 독특한 디자인이 특징이다. 환경 친화적인 주변녹지와 더불어 한 폭의 그림과 같다는 평을 자주 듣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곳의 상징은 무엇보다도 ‘퍼다나 푸트라’라 불리는 수상집무실 건물이다. 주변에 푸트라자야 호수를 끼고 있으며 16세기 무굴시대 건축양식을 엿볼 수 있는 건축물이다. 독특한 석조건물 위에 양파모양을 본뜬 모자이크식의 녹색지붕은 마치 인도의 타지마할을 연상시킨다. 특히 야간에는 다양한 주변 조명 빛과 어우러져 경관이 압권이다.



밤에 본 수상집무실 건물과 주변 경치



푸트라 모스크 전경

세리 퍼다나(수상 관저)는 호수를 끼고 돌아 수상집무실 건물 북쪽에 위치한다. 수상의 공식 행사 및 주요방문객 접대장소로도 사용되고 있다. 전통 말레이 및 이슬람 건축양식을 중심으로 한 동양미와 곳곳에 가미된 서양 건축양식을 함께 감상할 수 있는 곳이다.

수상집무실 바로 앞쪽 광장을 끼고 위치한 핑크 색채를 띤 웅장한 건물은 이슬람사원 푸트라 모스크다. 독특한 색채와 웅장함이 방문객들의 시선을 집중시킨다. 이 사원은 총 1만5천 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카사블랑카에 있는 하싼사원을 본떠 지어졌다.

3. 인근 과학 도시 사이버자야와의 관계

푸트라자야와 인접한 사이버자야는 2011년까지 멀티미디어산업, 연구개발센터, 멀티미디어대학, 멀티미디어기술을 이용한 세계적인 제조 및 무역활동을 지휘할 다국적기업의 운영본부를 갖춘 정보도시로 건설되고 있다. 따라서 푸트라자야의 행정 및 주거기능도 이웃한 사이버자야의 산업기능과 조화를 이루도록 추진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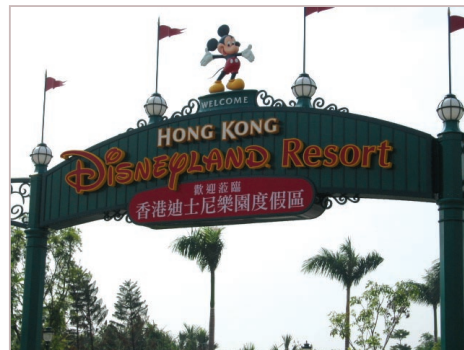
5

홍콩디즈니랜드 ; 란타오섬의 테마파크

1. 개요

2005년 9월 12일 개원, 세계에서 5번째의 디즈니리조트로 디즈니테마파크로서는 11번째이며, 아시아에서는 동경디즈니랜드에 이어 두 번째의 시설이다.

장소는 란타오섬 북부의 페니만, 1998년에 개항한 홍콩국제공항의 인근이다. 공항건설시에 인근까지 지하철이 개통되었고, 단거리의 디즈니랜드선이 2005년8월1일 개통되었다. 홍콩지하철中環역에서 약 25분거리, 면적은 126ha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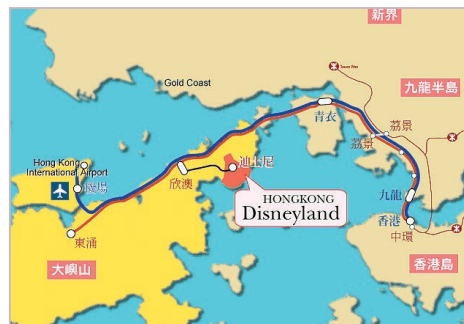
홍콩디즈니랜드 입구

2. 위치

홍콩은 크게 나누어 九龍, 香港島, 新界, 大嶼山(란타오도)등의 지역·섬을 포함해 대소120여개의 섬으로 구성되어 있다.

홍콩디즈니랜드는 그 중에서 최대의 면적을 자랑하는 大嶼山(란타오도)의 북동쪽 끝에 위치하고 있다.

홍콩디즈니랜드가 위치한 大嶼山(란타오도)은 섬



홍콩디즈니랜드를 중심으로 한 홍콩지도

전체가 산으로 이루어져 있어 디즈니랜드 주위에는 홍콩국제공항과 寶蓮寺(보련사)의 거대한 불상 이외의 시설물은 드물다.

홍콩은 좁은 토지위에 많은 인구가 살고 있어 테마파크를 건설할 만한 넓은 토지가 드물어 란타오도에 건설된 것으로 보인다.

3. 민관 합작투자(홍콩정부-월트디즈니사)의 추진

1999년 11월에 홍콩특별행정구정부는 공항이 있는 첵랍콧도에 인접한 란타오섬 북동부의 페니만 126ha에 월트디즈니사와 테마파크 '홍콩디즈니랜드(Hong Kong Disneyland; HKD 香港迪士尼樂園)'를 건설하여 관광객을 유치하는 계획에 합의하고 이를 공표하였다. 이 계획에 의해 홍콩디즈니랜드는 2003년부터 착공을 시작하여 2005년 개원을 맞이하게 되었다.



건설현장(2004년10월)

홍콩정부와 디즈니사 양자는 테마파크의 건설·운영을 위해 홍콩 국제테마파크유한공사(Hong Kong International Theme Park Ltd; HK I T P 香港國際主題公園有限公司)를 설립하고, 초기자본 57억 달러 중 홍콩정부가 57%인 32억5천만달러를 출자하고 월트디즈니사는 43%인 24억5천만달러를 출자하였다. 이러한 초기 자본투자에 대해 홍콩정부는 장래 제삼자의 투자확대시 디즈니사가 최소 19억주(1달러당 1주)의 지분을 소유토록 제한조항을 설정하였다.

디즈니랜드건설을 위한 총투자비는 140억달러로 이중 초기자본투자 57억달러를 제외한 84억 달러는 부채로 조달되었다. 부채 중 61억달러는 정부대출로 충당되었고(25년 상환조건), 나머지 23억달러는 시중은행에서 충당되었다.

또한 홍콩정부는 인프라구축을 위해 136억달러를 투자하여 기타 기초시설과 교통망 정비를 추진하였다.

제1기계획은 디즈니테마파크, 디즈니를 주제로 하는 리조트·호텔·복합시설 및 상업·음식·오락센터로 구성되어 2005년에 개원하였으며, 제2기 계획에서는 면적을 180ha로 확대할 예정이다.

홍콩디즈니리조트의 건설은 향후 40년간 1,480억달러의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개장과 함께 직간접적으로 18,40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리조트 건설공사만도 6,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어 홍콩경제에 새로운 바람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4. 홍콩국제공항과 홍콩디즈니랜드의 관계

홍콩국제공항은 홍콩도의 서쪽에 위치하는 란타오도의 해안에 조성된 첵랍콕(Chek Lap Kok, 赤鱗角) 島에 설치되어 있으며 1998년 7월에 개항하였다. 신공항은 1,248ha로 구홍콩국제공항(啓德空港)의 4배의 넓이이며, 개항당초의 처리능력은 여객이 연 4,500만명(啓德空港은 96년실적으로 2,950만명), 화물이 동 300만톤(동156만톤)으로 세계유수의 규모를 자랑하고 있다.

홍콩국제공항으로부터 홍콩도의 중심부까지 35.2km를 地鐵公司(MTR Corporation)가 경영하는 에어포트익스프레스로 23분에 갈 수 있다.

개항초기 홍콩국제공항은 아시아 경제위기의 영향을 받아 공항의 승객수가 감소하고, 높은 수준의 착륙, 주차비 등의 영향으로 항공기의 이착륙이 당초 예상한 수치에 도달하지 못하였다.

홍콩특별행정구정부(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Government)가 전액출자한 홍콩공항공단(the Airport Authority Hong Kong, 香港機場管理局)은 여객수를 늘리기 위하여 2001년부터 착륙료, 주차료를 15% 인하하고, 공항주변의 개발을 추진하였는데 그 일환으로 계획된 것이 홍콩디즈니랜드 리조트 건설이다.

5. 타 디즈니랜드소재지와의 비교

기후

	평균기온(℃)	최고기온(℃)	최저기온(℃)	강우량(mm/年)
캘리포니아	18.6	29	9	379
플로리다	23.8	33	9	1455.7
동경	16.2	31	1	1405.2
파리	11.5	25	1	647.9
홍콩	22.5	31	13	2222.7

기후적으로는 애너하임의 디즈니랜드가 가장 쾌적하고, 플로리다와 홍콩은 더운 편이다.

교통과 주변인구

	교통편	주변인구(만명)
캘리포니아	로스엔젤레스국제공항으로부터 차로 약 50분	3,614
플로리다	올랜드국제공항으로부터 셔틀버스로 약 30분	1,598
동경	동경역에서 JR케이바선, 무사시노선으로 약 15분 하네다공항으로부터 직행버스로 약 50분 나리타공항으로부터 직행버스로 약 50분	4,067
파리	샤를 드골 공항에서 전차로 약 10분 샤를 드골 공항에서 셔틀버스로 약 45분	219
홍콩	미발표	698

6. 홍콩디즈니랜드의 경영혁신

2005년9월12일 개원 첫날, 홍콩디즈니랜드는 ‘스태프의 서비스가 나쁘다, 면적이 좁다, 어트랙션 프로그램이 적다’는 등의 불만이 분출하였고, 현지시간 오후4시에는 투머로우랜드의 어트랙션 ‘스페이스 마운틴’이 고장나는 등의 장애가 발생하였다.

이와 함께 중국 본토로부터의 서비스객 중 매너가 좋지 않은 서비스객이 많다는 사실이 미디어에서 소개되어, 개원 초년도의 중국 국경일을 낀 대형연휴에 홍콩을 방문한 서비스객은 홍콩의 여행업계가 예측한 70만명, 홍콩정부예측의 50만명에 크게 못미치는 42만명에 불과하였다.

이에따라 2006년 1월 10일 미국 디즈니파크 & 리조트사는 실적부진을 이유로 홍콩디즈니랜드 리조트의 디즈니측 총책임자인 돈 로빈슨을 경질하고, 후임으로 디즈니 크루즈라인을 설립한 실적이 있는 빌 어네스트를 기용하여 개원 4개월 만에 대대적인 개혁을 가하였다.

빌 어네스트를 중심으로 디즈니랜드는 운영혁신을 통해 서비스를 개선하고 타 디즈니리조트보다 열악한 기후조건을 극복하기 위해, 장외 행사(이벤트)와 놀이기구를 최소한으로 하고, 대부분의 어트랙션과 놀이시설을 실내로 하는 전략을 구사하였다.

더불어 장내에서 벌어지는 뮤지컬, 3차원입체영상 등 볼거리의 수준을 높여 경쟁력을 확보하였다.

■ 시사점

금번 해외연수를 통해 우리 지역개발 및 성장동력의 창출에 있어 비자원의 자원화, 유니크한 프로그램의 개발, 선택과 집중의 실천, 효율적인 민자유치, 랜드마크의 개발, 경관에 대한 고려 등과 같은 6가지의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1. 비자원의 자원화 전략

비자원의 자원화 개념은 일본 토호쿠대학의 권기철 교수에 의해 처음 주창된 개념으로 기존의 자원활용개념에서는 비자원으로 구분되던 것을 독자적 사업개발 혹은 프로그램개발을 통해 자원화하는 지역개발전략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스웨덴의 노르보텐(Norrbotten)지역은 황량한 바위와 험악한 지형으로 유명하고 지하자원이 적은 지역이다. 이러한 험악한 지형과 지하자원의 부족이라고 하는 비자원을 스웨덴은 자원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이 곳에 험악지형 자동차 시험장을 건설하였고 이를 통해 자동차 테스트 산업을 발전시켰다. 이번 해외 연수 중에도 특히 홍콩은 매우 자원이 적은 곳으로 비자원의 자원화 전략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화강암층으로 구성되어 식물이 거의 자랄 수 없고, 기존의 시설물이 없는 란타오섬을 이용해 공항을 만들고 이러한 시설의 동반 활성화를 위해 아파트촌이 건설되고, 디즈니랜드가 건설되었다.

특히 디즈니랜드는 더운 날씨라고 하는 비자원을 자원화 하기 위해 모든 어트랙션 시설을 실내에 설치하고, 더운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시원함과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야외의 이벤트를 줄이고 실내의 각종 수준 높은 공연을 확충하여 볼 거리를 제공하고 있었다.

말레이시아의 겐팅하이랜드 또한 해발 2000m가 넘는 고지와 험악한 산지라고 하는 지형을 자원화 하여 동양최장의 케이블카를 설치하고 관광의 재미를 더하였으며, 화교자원에 의한 경제력 집중이라고 하는 비자원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외국인 뿐 아니라 국내인 중 화교의 출입을 허

가하는 카지노를 설치하고 막대한 세수를 거두어 들고 있다. 더운 날씨라는 비자원을 높은 산지 위에 리조트를 건설함으로써 자원화 한 것도 홍콩디즈니랜드의 예처럼 주목해 볼 만 하다.

우리 지역의 경우도 이러한 비자원 중 자원화가 가능한 것이 없는지를 검토해 보아야 한다. 간단히 검토할 수 있는 것이 농촌의 고령인구이다. 농촌 고령화 문제는 농촌의 비자원화라고 치부하고 복지정책에만 치중할 수도 있지만, 체험관광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하나의 자원화가 가능하다. 도시의 메마른 환경에서 생활하던 도시민들이 체험관광을 찾게 되는 이유는 농촌체험의 각종 어트랙션 뿐만 아니라 소박한 고향의 부모님에게서 느끼던 정을 느껴보고자 하는 측면도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고향의 부모님을 느낄 수 있는 시골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자원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겨울 눈이 많이 오는 평창은 겨울스포츠의 대명사가 되었고, 폐탄광으로 활력을 잃어가던 강원도 정선 등은 카지노 산업의 대명사가 되었고, 보잘것 없던 함평은 나비축제의 고장, 환경친화적인 농산물의 대명사로 바뀌었다. 그렇다면 과연 쓰레기 매립장이 있는 우리지역은?, 여름철 매년 수해가 나는 우리지역은?, 산악지형이 많아 지역경제가 열악한 우리지역은? 등 지역의 비자원에 대한 전략적 검토가 다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유니크한 프로그램의 개발

작년 대구에서 개최된 지역혁신박람회에서 세미나에 강사로 초빙된 일본의 한 교수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졌다. “왜 우리 일본의 지역개발정책이 대부분 실패로 끝났는지 그 원인을 아십니까?”, 이에 대한 그의 대답은 명쾌했다. “우리 지역개발이 실패한 것은 모방 때문입니다”. 한 지역이 독자적인 지역개발프로그램을 내 놓으면 이 프로그램에 대한 전국적인 이미테이션(모방)이 일어나게 된다. 혁신적인 사례로 정부 지방정부 할 것 없이 소란을 떨고, 이러한 사례를 전국적으로 확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과연 이러한 프로그램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게 된다면 처음 시작한 지역 뿐 아니라 나중 참여하게 되는 모든 지역들이 동시에 실패하게 되는 Lost-Lost의 상황이 실현되고 만다. 따라서 지역들은 Lost-Lost의 상황을 유발하는 레드오션을 지양하고 블루오션을 추구해야 한다.

지방자치제는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지표를 이용한 타지역과의 비교를 통해 단기적인 성과에 너무 집중해 버리는 단점을 내포하고 있다. 인근지역에서 성과를 내고 있는 사업에 대해 왜 우리 지역에서는 추진하지 않느냐고 하는 비판이 날아들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주체적인 전략을 수립하지 못하고 모방에 달려들어 버리는 폐단을 내게 되는 것이다.

말레이시아의 겐팅하이랜드는 카지노의 영업권을 엄격히 한 지역에만 제한함으로써 지역간 과도한 경쟁의 확산을 막고 있다. 중국의 동관지역은 타 지역보다 한 발 앞서 외자기업에 대한 전담부서를 확충하고 지역에 진출하는 기업을 찾아가는 서비스를 실시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홍콩은 관광자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야시장과, 고층건물의 점등을 통한 야경 정비, 홍콩 시내 유일한 작은 산을 이용한 야경 관광코스 개발, 전통음식 등으로 해마다 수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다.

3. 선택과 집중의 실천

지역개발에 있어 선택과 집중의 원리는 하버드 대학의 허슈만 교수의 불균형성장론에서 그 원류를 찾아볼 수 있다. 허슈만 교수는 기술개발에 있어서나 지역개발에 있어서나 가장 보틀넥(장애)이 되는 부분을 찾아내 자원을 집중함으로써 성장에 대한 자원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미국에서는 정책적으로 활용하여 일본의 반도체 산업에 대항하기 위한 제5세대 반도체 라인의 연구시설을 설치시에 전국에서 공모를 받고 선택기준(지역사회의 참여정도, 연구대학의 존재, 대학과 지역사회의 연계정도 등)을 충족하는 대상지 중 텍사스 오스틴에 각종 연구시설을 설치하고 이 곳을 중심으로 반도체관련 핵심역량을 집중하게 된다.

우리나라도 지방자치체가 해를 거듭하고 참여정부에 들어서 지역의 내발적 성장에 대한 주장들이 제시되면서 균형발전과 함께 선택과 집중의 논리가 지속적으로 주창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보다는 실천이 더욱 중요하다 할 것이다. 경제적으로 가장 보틀넥이 되고 있는 부분을 해결함에 있어 정치적인 논리가 끼어들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사항이 구호에 그치고 균등배분이 되고 있지는 않은가를 반성해야 할 것이다.

말레이시아의 겐팅하이랜드나 푸트라자야의 개발은 장기적 비전과 전략, 그리고 이의 실천을

위한 부족한 자원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의 각종 경제특구(우리가 방문한, 심천, 동관, 상해 등)는 이러한 선택과 집중의 세계적인 사례라 할 것이다. 물론 이로 인한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이 사실이나, 이러한 부작용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타 지역에 또다른 선택과 집중이 일어나 균형성장을 이루어간다는 것이 이론의 요지이므로 선택과 집중으로 인한 단기적인 부작용에 대한 염려보다는 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집중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4. 효율적인 외자유치

외자유치의 효과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그 중 주로 제시되는 것이 고용증대 효과, 세수확보 등으로 인한 지역경제활성화이다. 그러나 이러한 직접적인 효과 뿐 아니라 기업 간 관계에서 발생하는 부차적인 효과 또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지역경제의 장기적인 활성화가, 설비투자 뿐 아니라 지역의 혁신주체가 총체적으로 참여하는 혁신체계의 구축에 의해 좌우되는 지식경제시대에는 기업간의 관계, 기업과 대학과의 관계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전통적 기업간 관계는 하청관계로 대변되는 대기업과 주변의 하청 중소기업들로 구성되는 수직적인 형태로 구성되어 왔다. 혁신체계의 구축에는 이러한 지시와 복종에 의한 수직적인 관계보다는 지식의 공유와 학습의 확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직적인 형태의 기업간 관계를 좀더 유연한 수평적 관계가 가미된 형태로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수평적 기업간 관계를 유지해 온 해외기업의 유치는 우리나라의 기업간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기술이전에 의한 기술고도화 또한 부차적이지만 중요한 효과중의 하나이다. 충남의 홍성에는 텐소풍성이라는 자동차 부품 1차벤더가 진출하여 이와 같은 기업간 관계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이번 방문지 중 홍콩의 디즈니랜드는 홍콩정부와 미국 디즈니사의 공동투자자로 건설되었다. 공동투자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미국 디즈니사의 뛰어난 콘텐츠와 지금까지 축적된 경영노하우가 홍콩디즈니 성공의 열쇠라고 볼 수 있다. 또 하나의 열쇠를 쥐고 있는 홍콩정부의 인프라

투자지원과 디즈니의 운영능력이 결합되어 비록 면적은 작지만, 매력적인 테마파크가 조성된 것이다.

외자유치의 효과를 직접적인 효과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부차적인 효과까지를 내다보고 유치에 더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5. 랜드마크의 개발

최근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을 짓기 위한 중국, 미국, 두바이 등의 경쟁은 세계적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이러한 건축물은 지역의 랜드마크로서의 기능을 담당한다. 맨하탄의 자유의 여신상, 이번에 뉴욕에 건축되는 평화센터 또 말레이시아의 쿠알라룸푸르의 쌍둥이빌딩 등은 단순한 임대건물로서의 기능 뿐 아니라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명소가 되고 있고, 그 도시를 떠 올릴 때 그 도시의 이미지를 제공한다.

우리 도시지역에 부족한 이러한 랜드마크의 건설은, 지역의 특색을 살리고, 그 지역을 대표하는 건물로서 손색이 없도록 설계되고 건축되어야 할 것이다.

6. 경관에 대한 고려

금번 연수 중 가장 눈에 띄게 우리나라의 도시와 비교되는 대상지역 도시의 특징은 경관에 대한 심각한 고려라고 할 수 있다. 푸트라자야는 중석을 채취하며 패여진 땅에 호수를 조성하여 도시의 온도를 쾌적하게 낮추고, 경관을 미려하게 바꾸어 놓았고, 홍콩은 고층건물들로 꽉찬 비좁은 도시를 아름다운 관광명소로 바꾸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고층건물들에 조명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상해나 심천 등지도 경관조성을 위해 건축물들의 배색, 배치, 설계가 다양하게 고안되고 있었다.

앞으로의 도시는 꼭 생산적이고, 살기 편한 밀집지역으로서의 도시가 아니고, 편안함과 아름다움이 조화를 이룬 도시로 건설되어져야 할 것이다.

산업의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 첨단농업개발을 통한 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 도시 경관 및 랜드마크의 건설, 유니크한 자원을 활용한 관광활성화 등 금번 연수단이 방문한 지역은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지역경제활성화사례의 모델들을 제시하여 주었다. 우리나라에서도 각 지역별로 독특한 자원을 이용한 사례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도 일부 지역에선 ‘다른 지역이 아니까’라는 안이한 생각으로 프로그램들을 늘려가는 사례들을 종종 볼 수 있다. 우리지역들이 전부 고유의 특성을 가지고, 편리하면서도 아름다운 지역들로 발전되어 나갈 것을 기대해 본다.